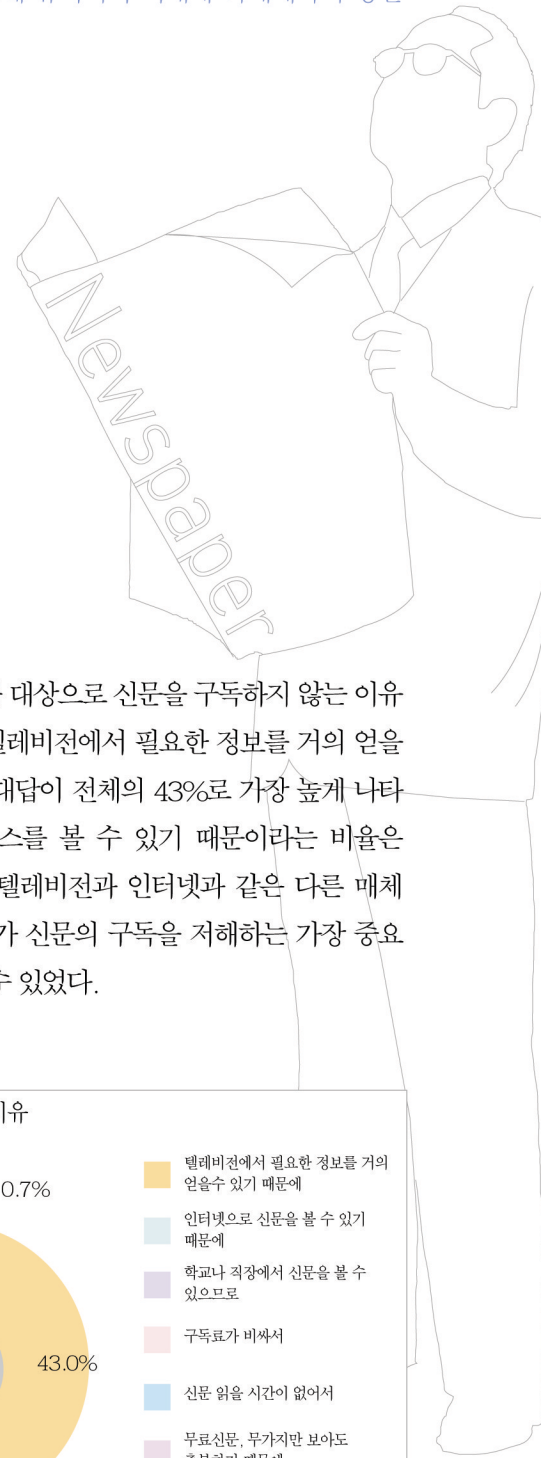


한국광고주협회는 빠른 매체환경의 변화와 크리에이티브 중심에서 가치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되는 광고집행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신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유추해 내고자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의뢰해 『2006 인쇄매체수용자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006 인쇄매체수용자조사』는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한달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국 거주 1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구독행태(구독률, 가관신문 구매율, 구독기간, 구독결정권자 등), 열독행태(열독률, 신문열독지수, 관심기사유형, 면별주목률) 및 태도·반응(타매체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문열독지수”, “디지털전환지수” 등과 같은 보조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뉴미디어 시대에 타매체와의 상관관계와 신문에 대한 질적인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신문시장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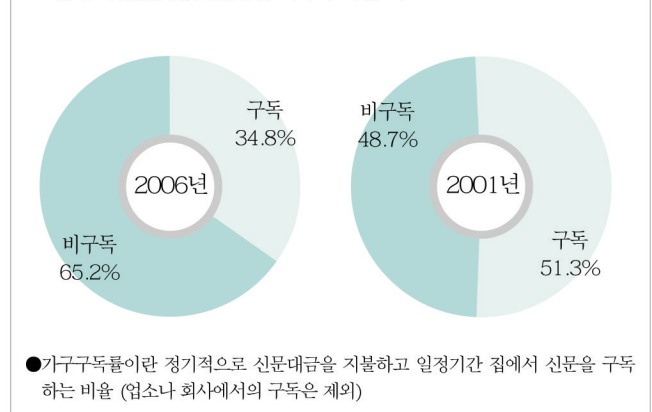


가구구독률 34.8%의 지속적인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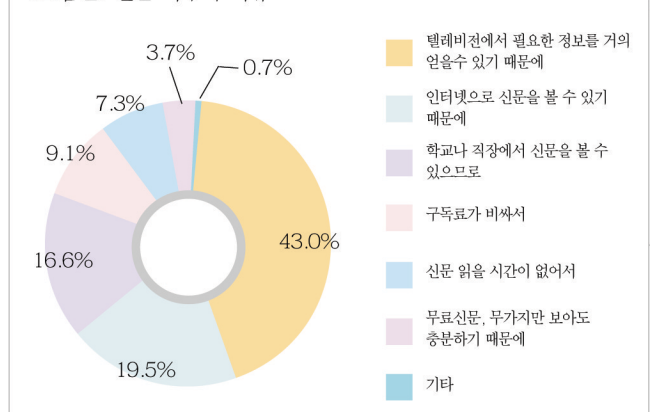
조사결과 신문의 가구구독률(정기적으로 신문대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은 전국기준 34.8%로 2001년 조사결과인 51.3%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신문구독이 5년 전과 비교하여 15% 정도 하락한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신문의 비구독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신문 비구독 가구를 대상으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텔레비전에서 필요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비율은 19.5%를 차지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한 뉴스의 소비가 신문의 구독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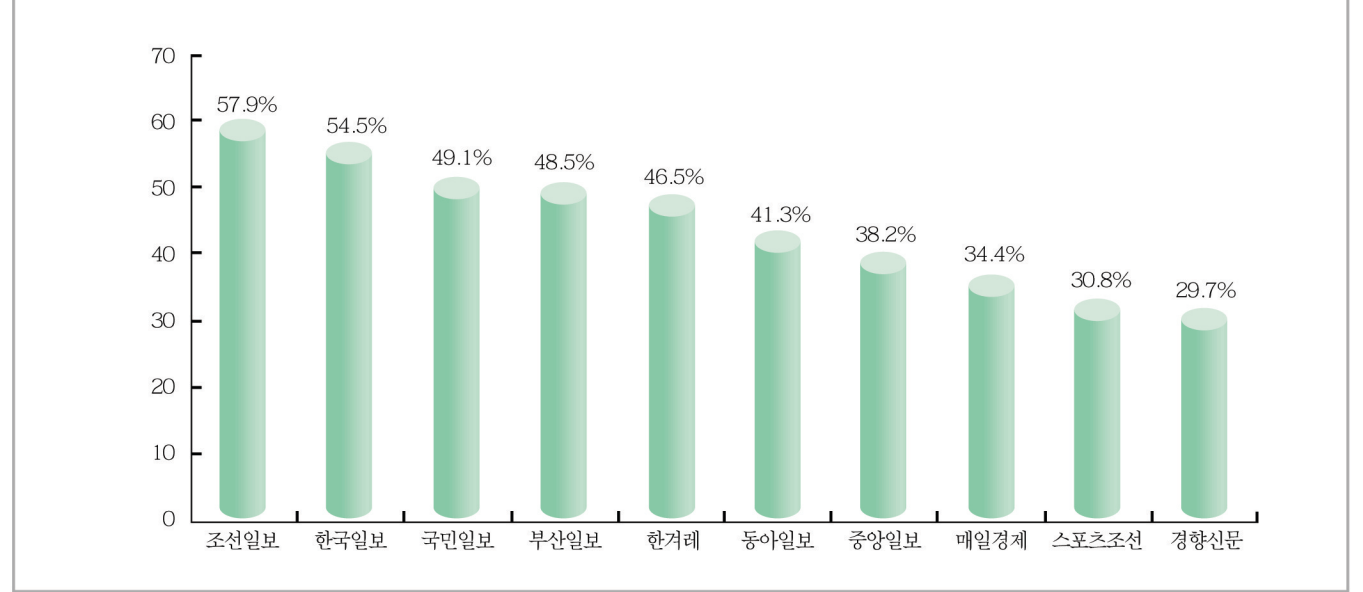
<그림 1> 2006년, 2001년 가구구독률 비교



<그림 2> 신문 비구독 이유



<그림 3> 신문별 구독기간 (단위:월)



시도별 가구구독률은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구독률이 대체로 높고, 시도지역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43.9%), 서울(41.4%), 인천(40.8%), 대구(3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22.9%)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조선일보 가구구독률 10.1% 제일 높아

신문별 가구구독률은 조선일보가 전국평균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중앙일보 8.4%, 동아일보 6.8%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 종합일간지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순으로 나타났고, 지방지인 부산일보, 경제지는 매일경제, 스포츠지는 스포츠조선이 전국 평균 10위안에 들었다. 표본오차가 1%임을 고려해봤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의 경우 신문사간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지역에서는 전국평균과 유사하게 조선, 중앙, 동아가 높은 가구구독률을 보였으며, 부산에서는 지방지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울산에서는 중앙일보가 1위로 나타났고, 대구지역 역시 지방지인 매일신문이 높았고, 호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낮았고, 한겨레신문의 구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의 가관 구매율은 전국 기준 5.5%로 2001년 10.8%

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지하철 출퇴근이 많은 인천, 서울, 대구, 경기, 부산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강원과 충북이 가장 낮은 가관 구매율을 보였다. 구매건수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 3개 스포츠지의 주간 구매건수가 높았고, 이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높게 나타났다. 석간지인 문화일보는 구매자 사례수에 비해 주간 구매횟수가 높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신문구독 평균기간은 3년 7개월, 세대주가 구독결정이 다수

전국기준 신문의 평균 구독기간은 3년 7개월로 나타났다. 주요 신문의 평균 구독기간은 조선일보가 약 4년 10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일보, 국민일보, 부산일보도 구독기간이 4년이 넘었다. 구독기간이 3년이 넘는 신문은 한겨레,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신문 구독가구를 대상으로 구독결정권자를 알아본 결과, 세대주가 결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77.6%를 차지했고, 세대주의 배우자가 결정하는 경우는 18.5%로 나타났다. 기타 자녀 등이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신문구독의 결정권자가 세대주와 배우자가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